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보 도 자 료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KPIPA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24. 10. 21(월)	담당자	대외협력팀 이민주
첨부파일	1.2024년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관 및 한강 작가 전시 현장	연락처	063-219-2746 minju@kpipa.or.kr

출판진흥원, 202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로 한국 출판 콘텐츠에 대한 현장의 열기 확인

- 국내 출판사 및 위탁도서 수출 상담 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나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은 2024년 10월 16일(수)부터 10월 20일(일)까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Frankfurter Buchmesse 2024)에 참가하여, 한국 출판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이를 위해 수출상담관 및 한국전자출판관을 운영하며, 한국 출판사들의 지식 재산권(IP)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전시 2일차 기준으로 약 600명의 참관객이 수출상담관을 방문하여 한국 도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특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창비'와 『흰』,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문학동네' 에 많은 참관객들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 이틀 간 수출상담관에서는 약 140여건의 수출 상담이 645,500달러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탈리아 'Quinto Quarto edizioni', 스페인 'Libros Del Zorro Rojo', 프랑스 'Cambourakis' 등 유수의 해외 출판사 바이어들이 방

문하여 한국 출판사 및 수출 전문가와 미팅을 가졌다. 한국 참가사 중 '리스컴'은 통역 지원을, '문학동네'는 "출판진흥원에서 상담 공간을 제공 받아 수출 업무를 진행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 작가와 작품을 꾸준히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학 산업의 선구안으로 불리는 KL 매니지먼트의 이구용 대표는 출판진흥원이 운영하는 공동상담공간을 이용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 국내 도서 수출 활성화에 활기를 더했다.

□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도서전 현장은 더욱 고조 된 분위기였다. 전세계의 수많은 출판계 관계자들이 한국 도서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수출상담관을 방문하였고, 한강 작가의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등을 발간한 독일 출판사 '아우프바우(Aufbau)'는 수상을 기념한 특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참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틀 간 도서전 현장에서 K-Book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열기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출판 콘텐츠의 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202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수출상담관 전경 및 한강 작가 전시 현장 .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케이북 수출지원팀 안혜진 주임(☎ 063-219-28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붙 임 **202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수출상담관 전경 및 한강 작가 전시 현장**